

# 강원도 지역경제의 현황과 과제\*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angwon region economy

이 종 민\*\*

(Lee, Jong-Min)

논문접수일 : 97. 12

게재확정일 : 97. 12

< 목 차 >	
I 서 론	IV 요약 및 정책적 방향
II 강원도 지역경제의 개관	
III 강원도내 지역별 산업경제 의 구조적 특징	V 결 론

## I. 서 론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발전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명제와 더불어, 그 내용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산업간,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성장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발전격차가 심화되고 지역경제 규모의 영세성과 후진성, 농촌경제의 심각한 정체성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낙후성이 두드러져 왔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주민과 정책입안자들

\* 본 논문은 1997년 6월 강원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시사포럼에서 저자가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확장·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사이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다는 국가전체 성장을 위한 효율성 위주의 정책을 선호해 왔다면 이제는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성장정책을 펴나가면서 중앙정부에 균등한 자원분배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지역별 산업정책(regional industrial policy)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수립에 앞서서 우선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다. 지역경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귀중한 자원의 낭비가 따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방향 및 전략이 현실의 토대 위에 설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지역 산업정책 수립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지표자료와 지역연구기법을 통하여 강원도 산업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분해·분석한다. 즉 전국대비 강원지역 산업경제의 실물적 측면을 자료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도내 각 지역권별 산업구조를 지역분석기법을 통하여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조명해 본다. 후자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객관적으로 지역 산업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또한 잠재적 성장산업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분석단위의 하위요소로서 기초자치단체(시·군)를 잡았고 상위요소로서 광역자치단체(도)를 설정하였다. 이같은 분석단위를 설정한 것은 자치단체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데 유용하리라는 판단에서이다. 한편, 연구의 분석변수를 고용자수로 삼았다. 서비스업종을 포함하는 통계분석상의 기준자료로서 고용자수 외에는 선택할 변수가 없었던 점도 있지만 지역경제는 일정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고 경제활동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고용확대와 소득증대에 있기 때문에 본고는 업종별 고용자 변화를 지역경제 변화로서 파악했다. 요컨대, 기초자치단체를 분석의 기본단위로 하고 고용자수를 분석변수로 하여 강원지역의 지역별 경제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별 성장요인을 식별한다.

이상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 2장에서 전국대비 강원지역경제를 몇가지 통계지표를 통하여 개관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강원지역 제조업 특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며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 II. 강원지역경제의 개관

### 1 강원도의 시·군별 인구변동

아래의 <표1>에 따르면 10년전인 지난 87년 1백 75만 1천명이던 도내 인구가 지난해에는 약 1.7% 감소한 1백 52만 8천명으로 집계됐다. 표상의 권역별 구분은 생활권 중심으로 나눈 것이며 춘천권에는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및 철원군이 그리고 원주권에는 횡성군이 포함되었다. 강릉권은 강릉시만을 나타내며 태백권은 정선군, 영월군 그리고 평창군을 포함하고 속초권은 양양군과 고성군이 포함되었다. 원래의 각 지역별 인구 자료를 보면 탄광지역권인 동해·삼척권 및 태백권의 인구유출은 심각해 정선등 일부지역은 10년전의 인구수가 절반이하로 줄어드는등 지역공동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도내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시군별 인구순위도 크게 변하고 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추진되기 전인 87년에 태백, 삼척, 정선지역은 각각 인구수가 12만명을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이들지역 인구가 모두 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90년대 들어서 도내 인구유출율은 둔화되는 속도를 보이나 탄광권내 지역의 인구감소는 여전히 강원도의 인구감소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통합행정구역의 원년인 95년 이래 춘천, 원주, 강릉권은 그 동안의 경제환경 변화로 타시·군에서 빠져나온 인구중 일부가 유입되어 인구가 늘어나는등 강원도내 시·군간의 인구이동 현상도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강원도 지역별 인구변동현황

(단위:천명,%)

연도별 권역별	1987년		1992년		1996년		87-96년	92-96년
	총인구	구성비	총인구	구성비	총인구	구성비	증가율	증가율
총계	1,751	100.0	1,555	100.0	1,528	100.0	-12.7	-1.7
춘천권	481	27.5	443	28.5	450	29.4	-6.4	1.6
원주권	270	15.4	272	17.5	292	19.1	8.1	7.3
강릉권	227	13.0	222	14.3	224	14.6	-1.3	0.9
동해·삼척권	227	13.0	196	12.6	189	12.4	-16.7	-3.4
태백권	392	22.4	271	17.4	221	14.4	-43.6	-18.4
속초권	153	8.7	149	9.6	151	9.9	-1.3	1.3

주:12월31일 주민등록기준임.

자료:강원일보(1997, 2) ;자료를 권역별로 합산한 것임 .

## 2 강원도 산업의 일반현황

아래 <표2>에서 강원도의 산업구조를 생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4년말 현재 농림어업이 12.4%, 광공업 19.8% 그리고 서비스 및 기타산업을 67.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광공업의 비중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최하위로 전국산업구조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산업은 전국수준 이상이다. 한편 90년에 비해 서비스 및 기타산업은 2.5%포인트 증가 했으나 농림어업 및 광공업은 각각 0.5%포인트와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강원도의 2차산업 비중이 대단히 미약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제조업 분야의 취약성도 있겠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광업생산이 급감하면서 그 비중 역시 감소한 연유인 것 같다.

아래 <표3> 의하면 강원도내 종업원수 5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80년 922개, 90년 1054개, 94년 1284개로 80년대부터 94년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내 전체 제조업의 98.8%-99.0%이다.

그 중 <표4>에서 보듯,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 및 조립금속·기계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 2> 강원도 산업구조 변동추이

(단위:%)

구 분	90년(A)	94년(B)	증감(B-A)
농 립 어 업	12.9	12.4	- 0.5
광 공 업	21.3	19.8	- 1.5
서비스업 및 기타	65.3	67.8	+ 2.5

자료원 : 한국경제연감, 1995년

종업원수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94년말 현재 13개사로 비금속광물제품업종이 5개소로 가장 많고 음식료품 2개, 담배, 섬유, 의류, 기계, 전자, 자동차에서 각각 1개씩 있다(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생산액 및 부가가치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도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액의 비중이 90년의 49.4%에서 94년에는 55.4%로 높아졌고 부가가치의 비중 역시 39.4%에서 50.7%로 크게 높아졌다. 이것은 동기간 사업체수의 증가때문이기도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중소기업의 생산설비가 상당부분 자동화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4도 부가가치 구성비중 비금속 광물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표 3> 강원지역 중소제조업의 성장추이

(단위 : %)

		80년	90년	94년
사업체수(개)	중소기업	913(99.0)	1,041(98.8)	1,271(99.0)
	대기업	9(1.0)	13(1.2)	13(1.0)
종업원수(명)	중소기업	16,732(72.9)	25,310(72.7)	29,369(77.9)
	대기업	6,230(27.1)	9,526(27.3)	8,309(22.1)
생산액(십억원)	중소기업	249(51.1)	1,121(49.4)	2,072(55.4)
	대기업	238(48.9)	1,148(50.6)	1,666(44.6)
부가가치(십억원)	중소기업	71(41.2)	436(39.4)	958(50.7)
	대기업	101(58.8)	671(60.6)	932(49.3)

주: ( )내는 구성비 임.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음식료품이 19.4%, 담배가 1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개 업종이 강원제조업 부가가치의 68.1%를 차지하여 나머지 업종의 부가가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대기업을 포함한 수치임).

한편,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지표상의 규모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도내 대기업에 비한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외형성장이 있었지만 질적성장 면에서는 <표5>에서 보듯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 및 부가가치 규모는 대기업과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전국규모에 비해서도 강원지역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이 80년에는 대기업의 38.9% 수준이었으나 90년 36.8%, 94년 35.2%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80년에는 대기업의 26.1%, 90년에는 24.4%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94년에는 전기·전자, 조립금속·기계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29.1%로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강원지역 중소기업 현황 (1994년)

	강원(A)	전국(B)	비중(A/B,%)
사업체수(개)	1,271<99.0>	90,447<99.0>	1.4
음·식료품	439(34.5)	5,771(6.4)	7.6
섬유·의복	55(4.3)	18,162(20.1)	0.3
화학·프라스틱	95(7.5)	7,952(8.8)	1.2
비금속광물	220(17.3)	4,618(5.1)	4.8
조립금속·기계	140(11.0)	20,274(22.4)	0.7
전기·전자	64(5.0)	7,321(8.1)	0.9
기타	258(20.3)	26,349(29.1)	1.0
종업원수(천명)	29<77.9>	2,025<69.1>	1.4
생산액(10억원)	2,072<55.4>	143,421<47.9>	1.4
부가가치(10억원)	958<50.7>	63,769<49.2>	1.5

주:1.< >내는제조업중중소기업의 비중(%)

2.( )내는 구성비

자료: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6. 4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조업동향을 <표6>에서 살펴보면 94년 4/4분기중 강원도는 57.5%로 전국에서 가장 부진했으며 정상조업 변동폭은 전년동기 대비로 충남(9.3% 포인트), 전북(6.2% 포인트)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데 반하여 강원지

역은 전년동기대비 4.4% 하락하여 정상조업율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종업원 1인당 성장추이

(단위:백만원, %)

		80년	90년	94년
생산액	전체	21.24	65.11	79.21
	중소기업(A)	14.90	44.28	70.55
	대기업(B)	38.28	120.46	200.51
중소기업비중(A/B, %)		38.9 (47.5)	36.8 (46.2)	35.2 (41.1)
부가가치	전체	7.53	31.77	50.16
	중소기업(A)	4.26	17.22	32.61
	대기업(B)	16.35	70.44	112.17
중소기업비중(A/B, %)		26.1 (55.3)	24.4 (49.4)	29.1 (43.3)

주:( )내는 전국 중소기업의 평균비중 임.

자료: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표 6>시·도별 중소기업 정상조업률

(단위:%)

구분	1994		1993. 4/4	증감(%P)	
	4/4	3/4		전기대비	전년 동기비
전국	84.9	84.3	83.9	0.6	1.0
서울	83.8	82.2	81.6	1.6	2.2
부산	89.8	88.8	86.8	1.0	3.0
대구	73.3	73.0	72.2	0.3	1.1
인천	99.0	99.4	98.5	△0.4	0.5
광주	82.2	79.8	78.6	1.4	3.6
대전	86.2	82.2	87.0	4.0	△0.8
경기	85.9	86.0	84.9	△1.0	1.0
강원	57.5	71.1	61.9	△19.6	△4.4
충북	82.0	79.3	80.4	2.7	1.6
충남	87.9	80.2	87.6	7.7	9.3
전북	90.3	88.8	84.1	1.5	6.2
전남	69.5	59.3	68.2	10.2	1.3
경북	64.6	63.5	64.6	1.1	0.0
경남	86.1	84.5	81.5	1.6	4.6
제주	84.0	81.0	83.0	3.0	1.0

주: 시·도별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의 전국평균치는 지역조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국동향의 정상조업률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시·도지부

### 3 지역내 총생산규모

지역간 소득격차 및 지역경제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합 경제 지표가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으로 이것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생산자에 의해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계이다. <표7>에서 보면 강원지역의 총생산규모는 95년 현재 전년도보다 14.3% 증가한 9조 3369억원으로, 성장률은 전국평균 14.9%에 근접하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담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2.7%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강원도민의 1인당 총생산은 95년의 경우 6,572천원으로 전국 평균치인 7,811천원의 84% 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전국 9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상대적인 소득수준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강원도가 여타지역에 비해 공업입지 여건이 불리하여 기업의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제력이 그 만큼 취약해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지역내 총생산규모 (경상가격) (단위: 10억, %)

구 분	90년	94년	95년	94-95 증가율	95년 1인당지역내총생산 (단위:천원)
전 국	186,743.9	318,322.5	365,676.8	14.9	7,811
강 원	5,249.0 (2.8)	8,165.5 (2.7)	9,336.9 (2.7)	14.3	6,572

주: 전국은 국방부문과 수입세(지역배분안됨)를 포함한 수치임.

( )내는 전국대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GRDP), 각 년호

이상의 통계자료로 볼 때 강원지역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반면 제조업의 발전은 지체되어 있다. 제조업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특히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담배제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비해 강원도의 부가가치 규모는 1.5% 수준에 불과하며 사실상 전국 규모의 특화산업이라 할 수 있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체 가운데 하청거래 관계가 전혀없는 기업의 비율이 95년 현재 74.2%(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5)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아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관계가 매우 열악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자금력과 기술력등이 강한 대기업의 역할을 할만한 기업이 없을 뿐만아니라 강원지역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제품업종은 생산구조의 특성상 계열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강원도의 지역내 총생산규모는 전국 대비 2.5% 수준에 불과하며 그 증가율도 전국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이고 1인

당 총생산규모 또한 전국 9개도 가운데 가장 낮아 강원지역 경제의 낙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낙후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미시적으로 진단하고 또한 어떤 산업이 지역의 낙후성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일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계획 수립과 지역경제정책을 세우는 기초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강원도내 산업구조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 III. 강원도내 지역별 산업경제의 구조적 특징

#### 1 지역권별 특화산업

지역산업의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 주는 적절한 지표로 지역의 산업별 입지상(location quotient: LQ)이 있다. 그것은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나타내 주는 유용한 지수로, 지역의 산업을 기반산업 부문과 비기간산업 부문으로 구별해 준다. 분석자료로 고용자수, 부가가치, 생산액, 임금액, 생산물량 등이 활용되는데 여기에서는 고용자료를 이용하여 입지상을 구한다. 지수는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구성비를 전국 또는 비교가능한 지역의 동산업 구성비로 나누어 줌으로써 얻어진다. 즉 전국 대비 j지역의 i산업 LQ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LQ = \frac{E_{ij}/E_j}{E_i/E} = \frac{j\text{지역의산업별구성비}}{\text{전국산업별구성비}}$$

(여기서  $E$ 는 전국의 총 고용인구,  $E_i$ 는 전국의 i산업 고용인구,  $E_j$ 는 j지역의 총고용인구,  $E_{ij}$ 는 j지역의 i산업 고용인구)

LQ가 1보다 커 j지역의 i산업의 평균고용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을 때 그 산업은 전국에 비하여 그 지역에서는 특화(전문화)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그 때 i산업을 그 지역의 기반산업(economic base) 혹은 수출산업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1보다 작을 경우에는 i산업은 그 지역의 자급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수입해와야 하는 수입산업임을 의미한다.

노동부의 노동관서별 집계에 의한 고용자수의 자료를 이용해 92년과 95년의 LQ를 계산해 보면 <표8>과 같다. 강원도의 지역별 구분은 노동부의 분류에 따라 5개 지역권으로 나누었다. 춘천권은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및 양구군이, 태백권은 태백시와 삼척시, 강릉권은 강릉시를 비롯하여 영북과 영동인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그리고 동해시 및 평창군 일부(도암면, 진부면, 용평면)가, 원주권은 원주시와 횡성군이, 마지막으로 영월권은 영월군, 강릉권의 평창군 일부를 제외한 평창군 및 정선군이 포함된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전국대비 강원도 전체입장에서 자원집약적인 광업분야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전문화 정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나 매우 강한 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광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년 50.0%에서 95년 39.4%로 줄어들었지만 전국 여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유한다. 한편 건설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전문성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밖에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등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8>연도별·지역별·산업별고용입지상

구 분	강원도		춘천권		태백권		강릉권		원주권		영월권	
	92	95	92	95	92	95	92	95	92	95	92	95
농업·수렵업 및 임업	1.00	2.00	0.50	2.50	0.50	0.17	2.00	0.33	0.50	0.67	·	5.67
어업	1.14	1.00	0.25	0.07	·	·	3.25	2.67	·	·	0.50	1.00
광업	24.2	20.0	0.03	0.08	3.13	4.86	0.16	0.19	1.25	1.40	72.75	52.4
제조업	0.51	0.57	0.95	0.91	0.42	0.55	1.08	0.85	1.72	1.50	0.56	0.7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70	3.00	1.45	0.52	0.45	0.76	1.20	1.67	0.35	0.29	1.40	2.24
건설업	0.69	1.08	1.51	1.42	0.63	0.65	0.91	0.89	1.16	1.05	0.49	0.7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0.87	1.02	1.00	1.03	0.36	0.45	1.26	1.16	1.65	1.31	0.29	0.30
숙박 및 음식점업	1.43	2.06	0.59	0.26	0.09	0.11	2.64	2.09	0.73	0.40	0.03	2.26
운수·창고 및 통신업	1.58	1.42	1.54	1.13	0.50	0.61	1.28	1.32	0.80	0.83	0.46	0.77
금융 및 보험업	1.28	1.54	1.51	1.56	0.47	0.54	1.14	1.05	0.93	0.73	0.63	0.95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71	0.57	1.26	1.26	0.91	0.96	1.28	1.17	0.72	0.89	0.46	0.25
교육서비스업	1.03	1.21	1.36	1.37	0.24	0.26	1.32	1.03	1.28	1.23	0.24	0.4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8	1.77	1.17	0.91	0.72	0.76	1.00	0.96	1.22	1.27	0.67	0.84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45	1.09	1.65	1.58	0.53	0.67	1.18	1.00	0.74	0.79	0.56	0.83

그러나 제조업의 전문화 정도를 보면 자급을 향해 발전해 가고는 있지만 강원도는 여전히 제조업 취약지역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95년 현재 LQ=0.57로서

이는 강원도의 제조업 고용자수로는 제조업에 대한 수요의 57%만 충족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이 자급을 위해 필요한 고용인구란 제조업이 이 지역의 제조업 수요를 100% 모두 충족시킨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고용자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위의 입지상 공식과 95년 실제 고용인구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x = \frac{E_i E_j}{E} = \frac{2,953,581 \times 120,876}{6,167,596} \approx 57,886$$

그런데 95년 제조업 실제 고용자수는 33,044명 이다. 따라서 제조업이 자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21,842 (=57,886-33,044)명이 더 증가되어야 한다.

한편, 강원도내 지역별 산업특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준지역을 강원도로 하여 입지상을 구해보면 먼저 춘천권은 강원도내 타지역에 비해 그간 건설경기가 활발했음을 보이고 있고 또 강릉권과 함께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화 정도가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등의 서비스 분야와 운수, 창고, 통신등의 기초 서비스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동과 영북지역을 포함하는 강릉권은 서비스 분야가 자급의 정도를 넘고 있고 그 중 음식, 숙박업등의 개인대상 서비스가 큰 전문화지수를 보여 이 지역이 관광 특화지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주권은 제조업 분야에 특히 전문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국 대비 입지상에서 보면 1보다 작은 전문화지수를 나타내 여전히 수입산업이지만(이종민, 1997, 5) 강원도 지역 관점에서는 제조업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인 전기·가스, 운수, 창고 및 통신등의 공익(utilities)부문과 금융, 부동산, 임대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약한 전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백권과 영월권은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극히 미약한 전문성을 보여 전반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 2 지역경제성장을 시차분석

지역산업의 전문화와 성장은 다양한 성장원인과 함께 동태적인 과정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성장의 분석은 지역의 총량수준 보다 세부적인 산업별 성장으로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 산업별 그리고 성장요인별로 구분한 지역경제 분석은 지역경제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지역개발정책 수립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처럼 지역내 산업성장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기법을 전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이라 한다. 즉 전이-할당모형은 지역의 경제 성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들 성장요인들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그러나 그 기법은 성장효과를 모두 고용자수나 소득의 변화분으로 나타냄으로써 산업별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이-할당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산업별 성장기여도를 성장률로 표시하는 지역성장율시차분석(regional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인 것이다.

성장률시차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1) C_{ij}(0) = \frac{E_{ij}(0)}{E_j(0)} = \text{기준년도의 } j\text{지역 } i\text{산업구성비}$$

$$(2) C_i(0) = \frac{E_i(0)}{E(0)} = \text{기준년도의 전국의 } i\text{산업구성비}$$

$$(3) PG_{ij}(0, t) = \frac{E_{ij}(t) - E_{ij}(0)}{E_{ij}(0)} = \left( \frac{E_{ij}(t)}{E_{ij}(0)} - 1 \right) = \text{기준년으로부터 } t\text{년까지 } j\text{지역 } i\text{산업의 성장률}$$

$$(4) GR_{ij}(0, t) = C_{ij}(0) \times PG_{ij}(0, t) = \frac{E_{ij}(0)}{E_j(0)} \left( \frac{E_{ij}(t)}{E_{ij}(0)} - 1 \right) = j\text{지역의 기준년도 } i \text{ 산업구성비로 가중한 } i\text{산업실질성장률(기준년도에서 } t\text{년도까지)}$$

$$(5) GR_i(0, t) = C_i(0) \times PG_i(0, t) = \frac{E_i(0)}{E(0)} \left( \frac{E_i(t)}{E_i(0)} - 1 \right) = \text{전국의 기준년도 } i \text{ 산업구성비로 가중한 전국 } i\text{산업의 성장률(기준년도에서 } t\text{년도까지)}$$

j지역의 i산업의 총성장률시차는 j지역의 i산업의 성장률 {  $GR_{ij}(0, t)$  } 에서 전국의 i산업의 성장률 {  $GR_i(0, t)$  }를 공제한 것이다.

$$(6) \begin{aligned} TG_{ij}(0, t) &= GR_{ij}(0, t) - GR_i(0, t) \\ &= \frac{E_{ij}(0)}{E_j(0)} \left( \frac{E_{ij}(t) - E_{ij}(0)}{E_{ij}(0)} \right) - \frac{E_i(0)}{E(0)} \left( \frac{E_i(t) - E_i(0)}{E_i(0)} \right) \\ &= \left( \frac{E_{ij}(0)}{E_j(0)} - \frac{E_i(0)}{E(0)} \right) \left( \frac{E_{ij}(t)}{E_{ij}(0)} - 1 \right) \\ &\quad + \frac{E_{ij}(0)}{E_j(0)} \left\{ \frac{E_{ij}(t) - E_{ij}(0)}{E_{ij}(0)} - \frac{E_i(t) - E_i(0)}{E_i(0)} \right\} \end{aligned}$$

식(6)의 우변의 첫 두항은 j지역의 i산업의 성장률과 전국의 i산업의 성장률 나타낸다. 이들의 차는 물론 j지역의 i산업의 총실질성장률시차이며 이는 또한 가중요인(weight part)과 경쟁력요인(rate part)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가중요인이란 기준년도의 j지역의 i산업 구성비와 강원도의 i산업 구성비의 차이를 강원도의 i산업의 성장률로 곱해준 것이다. 따라서 가중요인은 강원도 관점에서 특정지역에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이 입지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성장속도가 느린 산업이 입지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장요인으로 전이-할당분석의 산업구조효과에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 지역성장은 가속화되며, 반대의 경우는 둔화된다. 그러므로 가중요인은 지역산업구조의 유리성

을 나타내 준다.

한편, 경쟁력 요인은 j지역 i산업 성장률과 강원도의 그것과의 차이에 기준년도 j지역 i산업 구성비를 가중치로 곱해 계산된다. 이 경쟁력 요인은 지역간 경쟁력이 지역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역할당효과로 산업구조의 유리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지역의 i산업이 타지역의 i산업에 비하여 높은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성장을 성장률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력 요인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낸다.

이제 84년과 95년 두 시점의 산업고용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단, 84년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산업분류를 6차개정 방식에 의해 9개 산업으로 나누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제 6차 개정산업 분류방식에 의거, 산업을 종래의 9개 분류에서 14개 분류로 세분화 하고 있다.

<표 9>1984-1995 지역별 고용성장을 및 시사

구 분	성장율(%)	성 장 률 시 차		
		총시차	가중요인	경쟁력요인
전 국	153.0	.	.	.
강원도	9.8	-0.433	-0.331	-0.102
춘천권	21.4	0.116	0.539	-0.423
태백권	-36.5	-0.461	-0.645	0.184
강릉권	28.1	0.138	0.419	-0.281
원주권	198.0	1.879	0.619	1.260
영월권	-55.7	-0.654	-0.510	-0.144

<표9>에 따르면 1984년부터 1995년 까지 11년 동안 전국은 전 산업에서 153%의 높은 고용증가를 가져왔으나 강원도는 아주 미약한 실질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국 대비 강원도의 특화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광업의 퇴조때문임을 태백권과 영월권의 마이너스 성장률로 부터 알 수 있다. 나머지, 도시 지역을 낀 춘천권, 강릉권 및 원주권의 성장률은 강원도 성장률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원주권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실질성장을 나타내고 있어 강원도에서는 동 기간 동안 가장 성장한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성장률을 질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해 보면 태백

<표 10> 1984-1995 지역별·산업별 고용성장을 시차

구 분	강원도			춘천권			태백권		
	총시차	가중 요인	경쟁 요인	총시차	가중 요인	경쟁 요인	총시차	가중 요인	경쟁 요인
농업,수 림업,임 업 및 어업	0.005	-0.002	0.007	0.009	-0.008	0.017	-0.008	-0.004	-0.004
광업	-0.290	-0.235	-0.055	0.302	0.295	0.007	-0.258	-0.336	0.078
제조업	0.006	-0.018	0.114	-0.074	0.077	-0.151	-0.079	-0.126	0.047
전기,가 스 및 수도사업	0.003	0.007	-0.004	-0.005	-0.002	-0.003	-0.001	-0.006	0.005
건설업	-0.016	-0.016	-0.000	0.046	0.012	0.034	-0.031	-0.033	0.002
도소매 및 음식,숙 박업	-0.038	0.016	-0.054	-0.099	0.041	-0.140	-0.026	-0.039	0.013
운수,창 고 및 통신업	-0.039	0.017	-0.056	-0.078	-0.001	-0.077	0.013	0.001	0.012
금융,보험, 부동산 및 개인서비 스업	-0.060	-0.013	-0.047	0.036	0.086	-0.050	-0.042	-0.070	0.028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0.004	0.003	-0.007	-0.021	0.039	-0.060	-0.029	-0.032	0.003
합계	-0.433	-0.331	-0.102	0.116	0.539	-0.423	-0.461	-0.645	0.184

구 분	강릉권			원주권			영월권		
	총시차	가중 요인	경쟁 요인	총시차	가중 요인	경쟁 요인	총시차	가중 요인	경쟁 요인
농업,수 림업,임 업 및 어업	-0.002	0.016	-0.018	0.002	-0.004	0.006	.	.	.
광 업	0.209	0.216	-0.007	0.307	0.300	0.007	-0.362	-0.271	-0.091
제조업	-0.089	0.100	-0.189	0.781	0.139	0.642	-0.100	-0.106	0.006
전기,가 스 및 수도사업	-0.035	0.007	-0.042	-0.001	-0.001	0.000	-0.005	0.001	-0.006
건설업	-0.037	0.046	-0.083	0.182	0.008	0.174	-0.043	-0.029	-0.014
도소매 및 음식,숙 박업	0.061	0.014	0.047	0.144	0.052	0.092	-0.022	-0.032	0.010
운수,창 고 및 통신업	-0.014	-0.001	-0.013	0.161	-0.000	0.161	-0.003	0.001	-0.004
금융,보험, 부동산 및 개인서비 스업	0.030	0.018	0.012	0.130	0.065	0.065	-0.076	-0.046	-0.030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0.015	0.003	0.012	0.173	0.060	0.113	-0.043	-0.028	-0.015
합계	0.138	0.419	-0.281	1.879	0.619	1.260	-0.654	-0.510	-0.144

및 영월권을 제외한 타지역권은 가중요인이 모두 플러스의 시차를 보여 전반적으로 유리한 산업구조(강원도 전체적으로 고성장을 보여주는 산업구성비가 높은 경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동 기간중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쟁력 요인은 원주권에서만 플러스의 시차를 보였을뿐 춘천권과 강릉권은 마이너스의 시차를 보여 두 지역권이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졌으나 경쟁력에서는 뒤쳐져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두 지역권에서 플러스의 가중요인이 마이너스의 경쟁력 요인을 능가하여 결과적으로 플러스의 시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역권별·산업별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살펴볼 수 있다. 지역의 각 산업이 고용총시차에 기여하고 있는 율을 요인별로 계산한 것이 <표10>의 내용이다. 춘천권은 11.6% 성장했는데 성장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산업은 건설업과 금융, 보험, 부동산등의 서비스 분야이다. 특히 금융, 보험등의 산업에서는 미약한 경쟁력을 산업구조의 유리함으로 극복하고 있다. 강릉권은 운수, 창고, 통신등을 제외한 여타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그중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커 이 지역이 3차산업 중심의 위락지역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다. 한편, 원주권은 거의 전산업에서 지난 11년 동안 성장을 해 왔으며 특히 제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강원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한 제조업기능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 부동산, 임대등의 서비스 분야와 운수, 창고등의 기초서비스 분야는 앞의 전문화 분석에서 미약한 전문화를 보였으나 동 기간동안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기·가스등에서 마이너스의 시차를 보여 다소 아이러니컬 하다. 태백권과 영월권은 모든 산업에서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나타내 前산업지역임을 보이고 있다. 앞의 전문화 분석에서 광업은 두 지역에서 큰 특화를 보였는데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산업구성비에서 그 중요도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강원지역산업 구조의 조정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원도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반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은 극히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칭적인 산업구조를 어떤 이상적인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구조조정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전 절과는 달리 어느 특정산업의 우열성 내지 성장을 관점이 아닌 강원지역 전체산업의 관점에서 강원지역의 고용구조를 재편성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자.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원지역의 지역전문화계수(specialization quotient)를 계산해야 한다. 이것을 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표11>에 요약되어 있다. <표11>의 마지막 열 마지막 행의 값 58,438.5는 1995년 강원도의 산업별 실제 고용자수에서 전국의 고용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화된 강원지역의 산업별 고용자수(기대치)를 공제한 가상편차(image deviation)의 절대치의 합이다. 산업별 가상편차란 강원도가 전국의 고용구조를 가졌다고 가정할 때 강원지역의 각 산업으로부터 이동해야 할 고용자수를 말한다. 이 가상편차의 절대값의 합을 2로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총 고용자 이동요구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약 29,219명이 된다. 이를 다시 수정계수  $(= E/(E-E_j))$ 에 곱해 줌으로써 실제 수정된 고용인구 이동요구량이 계산된다. 즉

$$29,129 \times \frac{E}{E - E_j} = 29,129 \times \frac{6,167,596}{6167,596 - 120,876} \approx 29,803$$

여기서 대입된 숫자는 1995년 전국 및 강원도의 전산업의 실제 고용자수이다. 이제 이 값을 다시 강원도의 1995년 총고용자수로 나누면 전문화지수 백분비가 도출 되는데 그 것은 0.24이다.

<표 11> 강원지역의 산업별 고용비와 기대고용인구

구 분	전 국	강 원 지 역			
	고용의 구성비 (A)	고용의 구성비 (B)	1995년 실제고용인구 (C)	기대고용인구 (D)	가상차 (C-D)
농업·수렵업 및 임업	0.002	0.006	716	241.8	474.2
어업	0.003	0.003	336	362.6	-26.6
광업	0.005	0.100	12,043	604.4	11,438.6
제조업	0.479	0.273	33,044	57,899.6	-24,855.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007	0.021	2,506	846.1	1,659.5
건설업	0.084	0.091	10,976	10,153.6	822.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0.087	0.089	10,747	10,516.2	230.8
숙박 및 음식점업	0.017	0.035	4,191	2,054.9	2,136.1
운수·창고 및 통신업	0.090	0.128	15,513	10,878.8	4,634.2
금융 및 보험업	0.061	0.093	11,318	7,373.4	3,944.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083	0.047	5,700	10,032.7	-4,332.7
교육서비스업	0.029	0.035	4,221	3,505.4	715.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31	0.055	6,633	3,747.1	2,885.9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0.022	0.024	2,941	2,659.3	281.7
계	1.000	1.000	120,876	120,875.9	(절대치)58,438 .5

요컨대 강원도는 1995년 현재 전국에 비해 약 24%가 전문화 되어 있고 기준지역인 전국과 동일한 고용구조를 가지려면 95년도 강원도 고용인구의 약 24.6%에 해당하는 29,803명의 고용인구 이동이 있어야 한다. 이 수치는 앞의 분석의 제조업 자급에 필요한 고용자수를 감안해 볼 때 주로 제조업으로의 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산업조정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물론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실제 몇 명의 근로자를 이동시켜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산업별 취업자 요구량, 직업 훈련비, 노동의 수급, 산업시설 변경에 따르는 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 IV. 요약 및 정책적 방향

### 1 요약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생산유발 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산업적 분포 및 자원기반에 기초한 비교우위 산업을 식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 수립시 필요한 이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역기반의 특성을 주요경제지표와 함께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의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주요 지표를 통해 강원도 경제를 개관해 보면 강원지역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반면 제조업의 발전은 극히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타지역은 산업화의 진전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되거나 지역사회의 강력한 유치전략으로 대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에서는 90년부터 대기업이 숫적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사업체의 약 99%가 중소제조업이며 그중 비금속 광물, 음료식품, 담배제조업등 자원집약적 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68.1%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규모의 특화산업이라 할 수 있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인당 총생산 수준도 95년 현재 전국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전국 9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내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강원경제의 낙후성을 여실히 대변해 준다.

게다가, 산업고용성장을 관점에서 84-95년의 11년 동안 강원도는 전국의 성장률(153%)에 크게 밀도는 9.8%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강원도가 산업성장의 분야에서 제외되어 그 분야의 이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여타지역에 비해 강원지역이 공업입지 여건이 불리하여 기업의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데다, 정부가 그간 수출주도형산업 및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고 또 산업의 입지가 공단중심의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

다. 요컨대 강원도는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그 위치가 대단히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에서 춘천권은 건설업과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등의 서비스 분야와 운수, 창고, 통신등의 기초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전문화 되어있고 태백권과 영월권은 광업이, 강릉권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그리고 원주권은 제조업 분야가 강한 전문성을 띤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1984년 부터 1995년 까지 11년간의 지역경제에 대한 산업의 기여를 고용성장율을 가지고 추적해 보면 춘천권에서는 건설업과 금융, 보험등의 금융서비스 분야가 성장율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였고, 강릉권은 음식·숙박업의 개인대상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 했으며, 원주권은 거의 전산업에서 성장이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제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강원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한 제조업 기능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태백권과 영월권은 산업의 대부분에서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여 이들 두 지역권이 前산업지역임을 노출시키고 있다. 여타지역에 비해 큰 특화를 보이는 광업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산업구성비에서 그 중요도를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정책적 방향

통계자료나 본 분석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강원지역경제의 문제는 산업구조의 불균형에 있다. 즉 서비스 산업에 비해 2차산업이 지나치게 취약하다. 그 중 생산성이 낮은 광업은 차치하고 산업의 바탕이 되는 제조업 분야가 워낙 열세상태에 있어 강원경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전국대비 하위 수준의 지역내총생산 규모와 1인당 총생산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고, 또한 지난 11년간의 강원도 전 산업고용성장율의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 보면 산업구조의 불리함에서 비롯된 마이너스의 가중요인이 산업의 마이너스 경쟁력 요인보다 더 커 강원지역 고용의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태백권과 영월권의 광업퇴조에 따른 마이너스의 영향이 강원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이 미약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강원경제의 낙후성은 강원도 전 산업의 경쟁력이 미약한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원인은 산업구조의 불리함 때문이다. 따라서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강원지역경제 정책의 초점을 제조업의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산업재편의 우선순위를 제조업에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이 선진국처럼 금융, 보험업이 아닌 아직은 제조업 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성장율이 높은 지역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제조업의 역할이 미약한 지역은 성장이 느리다. 이는 제조업 특성상 중간재나 부분품 등 주변산업으로의 생산과급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의 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더구나 3차산업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이 존재하는 것은 공산품의 거래 때문이고, 또한 수송·전력·용수 등의 서비스의 상당부문도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수출품은 주로 공업제품이므로 제조업은 국내시장규모에 따른 양적 제약과 상관없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전체입장에서 제조업은 대단히 미약한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전문화 지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92년 0.51, 94년 0.55, 95년 0.57). 더욱이 제조업을 지원하는 분야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그리고 금융서비스등은 모두 1보다 큰 전문화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 제조업의 기반이 비관적이지 않은 않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지난 11년 동안 제조업은 마이너스의 가중요인이 나타나 산업구조의 불리함을 보이고 있으나 그 불리성을 경쟁력면에서 극복하여 총성장을 시차는 결국 미약하나마 0.6%라는 플러스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활성화 방안은 두가지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선 강원도 제조업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내부적인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고용유지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뛰어난 기동력과 틈새시장의 개발로 경쟁적 우위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책은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도내로의 제조기업 유치이다. 강원도는 1995년 현재 고용구조면에서 전국에 비해 약 24%가 전문화 되어 있고 전국을 기준지역으로 할 때 최소한 전국과 동일한 고용구조를 갖는 산업구조를 가지려면 강원도 고용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29,803명의 고용인구 이동이 있어야 한다. 한편 계량적 측정에 의하면 강원지역 제조업이 전국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95년 현재 최소 약 21,842명의 고용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사실을 대비하여 볼 때 산업구조의 재편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강원지역의 산업구조상 여타부문에서 제조업으로의 고용인구 이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량의 외부유입을 통해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제조업의 도내 유치가 산업구조조정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제조업의 활성화를 축으로한 지역산업의 구조개편은 각 지역마다 비슷한 산업을 육성하거나 무조건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자연적·산업적 여건을 고려하고 또 소득 및 고용승수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원도에서 제조업유치는 집적이익(agglomeration economy)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전문화되어 있는 원주지역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제조업과 밀접히 관련된 도·소매, 운수, 창고 및 통신등의 공익(utilities)부문 및 금융, 부동산, 임대등의 서비스 산업이 그간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여타 지역에 비해 원주권에서 고른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문화 지수 분석에서 본 것 처럼 이들 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지원하는 분야인 전기·가스등의 산업은 여전히 자급의 정도를 넘지 못해 이 지역권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산업이 보강되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활성화 내지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관련한 내용은 또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략으로서 강원도는 관광·청정 휴양지역이라는 중앙정부의 환경논리에 압도당하여 제조업의 활성화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발전/개발과 공업화가 반드시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학자들의 오랜 논쟁이긴 하지만 지역의 공업발전이 선행됨이 없이는 도시나 그 배후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조업의 활성화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조업의 활성화는 잠재적 경제력 기반의 쇠퇴를 가져오는 타시도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인구유출 현상은 지역투자를 둔화시키거나 역투자효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결국에는 고용잠재력을 감소시킨다.

## 참 고 문 헌

- 노철호,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바람직한 지원시책”, 「강원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전략」, 강원개발연구원 및 강원은행, 1996. 6
- 이종민, “강원지역 산업경제의 구조적 특성”, 「강원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7. 5
- , “강원도 지역경제의 특성과 성장요인”, 「강원포럼」, 강원개발연구원,  
1997. 6
- 최재선, 「지역경제론」, 법문사, 1995
-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 보고서」 각 년호
-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각 년호
-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호